

교회협 화통 제2023-10호

2023. 7. 13

수신 조선그리스도교련맹 강명철 위원장

참조

제목 8.15 한/조선반도 평화통일 /북남 공동기도문 협의의 건

주님의 크신 은총이 위원장님과 귀 련맹 성원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본회는 8월 15일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/조선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을 준비하며, 남북/북남 공동기도문 초안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. 귀 련맹과 합의된 공동기도문을 번역하여 세계교회와 함께 사용하고자 하오니, 본회가 작성한 공동기도문을 검토하시어 다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. 가급적 7월 31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하나님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귀 련맹 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속히 좋은 날이 와서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, 귀 련맹의 회신을 부탁드립니다.

첨부: 2023년 한/조선반도 평화통일 남북/북남 공동기도문(남측초안)

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
총무 직무대행 태동  
화해통일위원회  
위원장 한기양



## 2023년 한(조선)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(이사야 52장 7절)

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일치를 이루신 주님(엡 2:14),  
이 시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.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.

### 사랑의 하나님,

정전 70년이 되는 해이지만, 여전히 남과 북(북과 남)은 서로를 적대시하며, 보이는 철조망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마음의 빗장이 우리 민족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. 한(조선)반도에 잠시 불어왔던 봄바람은 사라지고 냉기만이 감도는 땅이 되었습니다. 전쟁의 위험은 더 커지고 강대국들은 이 땅 백성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만 옳다는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. 주님 언제까지입니까? 언제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? 언제까지 그리워하면서도 미워하며 살아야 합니까? 주님, 사랑의 묶는 띠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.

### 소망의 하나님,

그럼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평화와 통일의 작은 씨앗마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. 주님을 평화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이들을,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,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게 해주십시오. 민족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화해와 평화의 언덕을 오르게 해주십시오.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저를 호명하실 때, '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' 대답하게 해주십시오.

### 믿음의 주이시며,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,

"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,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,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."(미가 4:3)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. 이 땅에서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해주시고,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 민족의 힘과 지혜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. 남과 북(북과 남)이 공존과 번영, 화해와 통일을 위해 다시 손 맞잡게 해주십시오.

### 정의와 생명의 하나님,

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고,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할 DMZ가 긴장이 고조되며, 신냉전의 대결구도가 명확해지는 '선'으로 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웃 나라 일본이 핵 오염수를 투기하며 주변국뿐만 아니라, 하나님 주신 바다를 위협에 빠뜨림은 물론 세계시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. 주님,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 지구를 위협에 빠뜨리는 저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소서. 이 일을 위해 남과 북, 북과 남이 한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한(조선)반도를 넘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하나 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.

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

2023년 8월 15일

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

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

